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번 주의 큰 주제(big topic)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할 준비가 되었나요?  
간단한,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만약, 아름답게 펼쳐진 대양에서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를 보는 것과,  
바닷가에서 꿈쩍달싹 못하게 밧줄에 묶여 있는

거대한 고래를 보는 것 중에 선택하셔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고래를 보신다고 합시다.

고래 관광 배를 타고  
대양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고래를 마음껏 보시거나,

바닷가에서 궁지에 몰린 고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대양이겠죠,  
여러분은 대양에서 보는 것을 선택하실 것 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대한 푸른 고래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대양에 있는 거대한 푸른 고래를

보러 가신다면, 고래가 물 밖으로 뛰고,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것 차체로 장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고래는  
바닷가의 묶여 있는 있도록 창조되어 지지 않았기에,

보시면,  
애처로워 보일 것입니다.

대양에서, 고래가 있어야 할 환경에서는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고요?  
왜냐하면 2천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밤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6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을 찾아보세요.

25절-35절을 읽어보세요.

25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랍비여(선생님이라는 뜻),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놀라운 주장에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보기 전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은 많은 무리에게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면,

이 많은 무리들은 그 전날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빵 5개와  
두 마리 작은 생선으로

5천 여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것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 무리가 그 다음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6절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바로 그 전날에 행하신 기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묘사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표적이 무엇인 줄 압니다.

표적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표적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표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떡을 나눠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단지 표적이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우리들은  
그 표적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세상에 오실 그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저 떡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들이 그 떡에만 만족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하게 지내는 한 가족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휴가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보죠.

그 가족이  
“우린 바닷가로 갈 거예요.”라고 합니다.

영국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해변가가 어디있나요?  
그 가족이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브리딩톤(Bridlington: 영국 동북부 해안 소도시).  
인기 많은 장소입니다.

그 가족은 브리딩톤(Bridlington)으로 떠납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말하고,

여러분은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고,  
그 가족은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일치기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시골길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그 가족의 차가 보입니다.

왠지 가족 전체가  
브리딩톤 표지판 아래서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해 보여요. 왜냐면  
가족 전체가 차 밖에 나와서,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도 나와있고,  
간의 탁자도 차려져 있고,

심지어 바비큐 세트까지 나와있어,  
거기서 저녁을 먹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이상해서

차를 세워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저는 브리딩톤에  
가시는 줄로 알았어요.'

'네. 브리딩톤에 왔어요.  
여기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니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저 표지판일 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브리딩톤이 저쪽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차를 타셔서 계속 가세요.

표지판아래 길가에서  
저녁 먹을 준비하지 마세요.

표지판이 브리딩톤이 아니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표적에,

음식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요?  
이제 27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의 다른 호칭)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주시는 것을  
그들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이 잠깐 동안의 음식 또는 영원한 음식.

그럼 이 우리들이  
마음과 영혼,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은 무엇인가요? 썩어 없어질 음식,  
일시적인 음식. 썩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면

잠시 동안 에너지를 주지만,

하지만, 항상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은 참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만 열심을 내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무관심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시적인 음식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붓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영원한 음식을 맛보길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음식을  
예수님께서서는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바게트 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군침나는  
이탈리 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정한 영양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같이 대화를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28절을 봅시다.  
그 우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관찮습니다. 영원한 음식이라니 좋겠네요.

근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무엇을 이뤄야 하나요?  
당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그 많은 종교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새롭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준비되셨나요? 개봉박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한다.

너는 원대한 성취를 해야만 한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네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그를 너의 주로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아주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럼, 30-3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0절을 읽어봅시다.

30절에 그 무리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유대의 역사책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통해

사막을 건넌  
유대사람들의 역사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사람들을 먹였고

표적을 행함으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께,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실 거예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사람을 먹였지만

이 무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시니라.”

그래서 진실된 비교는  
모세의 때에 사람들을 먹였던 특별한 떡과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진실되고 깊은 삶을

오늘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떡을 원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굉장한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분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캐비아(철갑상어알)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캐비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확실히 캐비아를 매일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캐비아를 보관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문화에서,  
오늘날의 많은 문화에서와 같이

떡(영어성경-빵)은 사치식품이 아니라,  
필수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필요하도록 지어졌다고 주장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아주 깊은 특별한 필요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어졌고,

오직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진실되게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필요와 열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정에 대한 필요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안정에 대한 내적인 열망을,

안전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넷 중 하나이지요.

두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리 모두 알지 않나요?  
우리는 기쁨과 깊은 지속되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 깊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저만큼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하시는 열망이요.

네번째는 열정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필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열망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필요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체물은 어떤 것이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돈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서 가지면

자신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대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 또는 직업에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길,

‘맞아. 내가 이 승진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면 행복해 질꺼야.’

또는 가족들이 내가 이룬 것을 고마워 할거야.

또는 내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꺼야'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 받고자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외모나 아름다움은 어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외모와 유행하는 옷과 몸매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체물(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몇 가지의 하나님대신 어떤 대체물을  
우리 삶에 밀어 넣어

이러한 다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대체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체물은

절대적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체물들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에 안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주의 흥을 깨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재미를 망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대체물을 추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대신 다른 대체물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망치고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들이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특히 갈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면

나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필요가  
채워질 꺼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관계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대체물들을 쫓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내재된 필요들을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 하는 모습을  
'사랑을 저버린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과 불륜을 맺었다면

남편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남편은 행복할까요? 미소를 지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는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그는 화낼 권리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큰 구조임무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조별로 토론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언제 유익을 줍니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떡 큰 한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 떡 큰 조각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쳐다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할까요?  
그리고 싶으세요?

이 떡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까요? 아니요.

계속 쳐다볼 수 있고,  
찬장에도 넣을 수 있고,

밤마다 꺼내서 ‘우아. 이것 봐라. 떡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유익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떡 자체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있으려면,  
집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약속하니,

내가 아주 깊은 곳까지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룹에서 함께 토론해 보세요.

몇 분 동안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얘기를 나누시고,

제가 다시 앞으로 나와 오늘 밤 큰 질문(big ques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mailto: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http://www.10ofthose.com)